

제품기획서 대신 AI에게 묻는다

“예전에는 제품 기획서를 두껍게 만들었어요. 지금은요? 일단 만들어보고, AI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최근 한 식품기업의 신사업팀은 제품 개발 방식을 과감하게 바꿨다. 과거에는 PRD(제품기획서)를 길게 작성한 뒤 개발을 시작했다. 제품사양, 특징, 마케팅 전략까지 모두 정리한 뒤에야 첫 시제품이 나왔다. 하지만 지금은 순서가 다르다. AI와 초안을 제작한 후 빠른 테스트를 거쳐 데이터를 판단하는 구조다.

버전 0.1은 AI와 함께 만든다

삼양식품 신사업팀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할 때 먼저 요구사항을 간단히 정리한다. 그리고 AI에게 말한다. “우리가 만들려는 제품을 PRD 형식으로 정리해줘.” AI는 몇 초 만에 기획서를 작성하고 사람은 그 초안을 보며 ‘맞다, 아니다’를 판단한다. 이 과정을 통해 버전 0.1이 만들어진다.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빠르게 시험해 볼 수 있는 최소 버전이다. 이후에는 실제 사용자 반응과 데이터를 보고 버전 0.2, 0.3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이다.

소비자 데이터도 AI가 읽는다

이 팀은 제품 개발 단계뿐 아니라 SNS 리뷰, 검색 트렌드, 온라인 반응도 AI로 분석한다. 예를 들어 특정 매운맛 제품에 대한 해외 반응, MZ세대가 많이 언급하는 키워드, 리뷰에서 반복되는 불만 요소 등과 같은 데이터는 사람이 일일이 읽기 어렵다. AI는 수천 건의 데이터를 빠르게 정리해 준다. 그 결과 소비자의 취향을 신제품 기획에 더 빠르게 반영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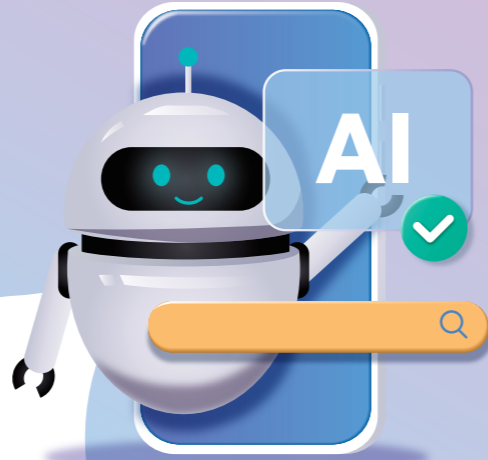
‘맥도날드 시스템’처럼 표준화하다

프로젝트가 커지면 AI도 헛갈린다. 정보가 흩어져 있으면 엉뚱한 코드를 만들거나 중복 작업이 생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팀은 일종의 ‘표준 매뉴얼 시스템’을 만들었다. 모든 정보는 하나의 저장소에 기록하고 회의는 전부 녹음해 텍스트로 변환한다. 또 AI가 기획서를 먼저 검토한 후 AI끼리 가상 토론(FGI)을 진행시킨다. 마치 패스트푸드점에서 정해진 매뉴얼대로 버거를 만들 듯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제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무엇이 달라졌을까?

이 방식이 만든 가장 큰 변화는 의사결정 속도다. 예전에는 기획서 작성에 몇 주가 걸렸다면 현재는 하루 만에 초안이 나온다. 중요한 점은 AI가 제품을 대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초안’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 결국 경쟁력은 기술보다는 AI를 활용해 더 빨리 실험하고 더 빨리 수정하는 조직 문화에서 나오는 건 아닐까?

*참고자료=삼양식품 신사업팀 인터뷰 참고 (테크리드 김성준, 최동훈 PM)



한잔 할래요?

막걸리



막걸리 최초 HACCP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쌀가공품 품평회 1위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제품 개발에 사용된 AI 도구들

Claude Code • 기획서를 PRD 형식으로 작성 • 코드 작성 및 파일 분석 수행	Cursor • AI 기반 코드 에디터 • 비개발자도 쉽게 프로토타입 제작	CLOVA Note, DAGLO, A.note 등 ZZAV • 회의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 • AI가 이를 기반으로 기획서 초안 작성
--	--	--